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美 2/4분기 성장률 2.5%로 급락
- 기업 투자 심리 침체 지속

경영 노트

- ‘머즈 마케팅’의 활용

사회 트렌드

- ‘위미노믹스’의 시대
- ‘걸코트’(Girlcott)

저널 브리프

- 도하라운드 결렬과 전망

洗心錄

- 네 단어의 위력

□ 美 2/4분기 성장률 2.5%로 급락

- 미국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4분기 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로 하락함에 따라 美 경제의 경기 급락 우려가 대두됨
 - 부문별로 보면 2/4분기 성장률 급락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비 지출 증가율이 1/4분기의 4.8%에서 2.5%로 하락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음
 - 또한 기업투자 증가율이 1/4분기 13.7%에서 2/4분기에 2.7%로 급감하였으며, 신규 주택건설 투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 -0.3%에서 -6.3%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됨
- 특히 미국의 2/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가 연율 환산 기준으로 12년만에 최고치인 2.9% 상승하여, 저성장 속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적 경기 침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기업 투자 심리 침체 지속

- 8월 전경련 및 한은의 기업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하는 등 기업 투자 심리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경련의 종합경기전망 BSI는 지난 5월에 110.7에서 6월 98.6으로 기준치를 하회한 데에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94.2 및 94.4를 나타냄에 따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 한국은행의 8월 업황 전망 BSI도 7월의 84에서 7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수출 기업(82/85)보다 중소 기업/내수 기업(78/76)들이 향후 경기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도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으로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 하강 및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시장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업 투자 심리 위축과 이에 따르는 설비투자 부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버즈 마케팅’의 활용

- 인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활용한 ‘버즈(buzz) 마케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버즈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매스 마케팅’과는 달리, 개별 소비자들이 ‘벌처럼 윙윙거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제품을 알리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임
 - P&G는 주부 60만 명으로 구성된 ‘입소문 마케팅 협회’와 10대 청소년 20만 명으로 구성된 입소문 클럽인 ‘트레머’를 운영하고 있음
- 버즈를 유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상품에 대한 ‘화제’와 진실성임
 - 상품을 이용해 본 소비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 전파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거의 들지 않지만 큰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 억지로 입소문을 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하게 되며, 윤리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가령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는 P&G의 입소문 전담조직에 속한 소비자들이 주변에 P&G와의 관계를 알리도록 P&G가 강제하지 않아 순수한 인간관계까지 광고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이유로 P&G를 美무역위원회(FTC)에 제소
- 전체적인 브랜드 전략과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때 효과적
 - 버즈마케팅은 일회성 이벤트처럼 생각하고, 브랜드 구축과 제품의 변화를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경우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과 맞물려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제품 신뢰도 및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설문 조사(복수 응답) >

제품 관련 광고 메시지의 신뢰도		구매의사 결정 주요 요소	
다른 소비자의 추천	90%	입소문	59%
해당 제품 웹사이트	70%	인터넷 사용 경험기	37%
인터넷 사용 경험기	60%	샘플 광고	36%
신문광고	55%	TV 광고	30%
TV 광고	45%	전문가 추천	18%

자료 : 네덜란드 포레스터 리서치, 아줌마닷컴 소비자모니터센터

□ ‘위미노믹스’의 시대

- 여성의 경제력 향상, 구매력 강화, 여성 리더십 등 바야흐로 여성의 손에 국가 경제가 달려 있는 ‘위미노믹스’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
 - Womenomics란 Women과 Economics의 합성어
 -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올해 5월 50.1%를 차지, 남성을 추월했고, 여성 창업자도 꾸준히 늘면서 기업 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구매력도 막강해졌고, 단순하고 맹목적인 소비 습관을 버리고 제품을 선별하는 똑똑한 소비자(smart consumer),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거듭나고 있음
 - 또한 지식경제 시대의 감성과 유연성, 창조성에 적합한 여성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과연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위미노믹스’라는 개념에 걸맞는 질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동아일보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 대기업 입사 대졸 여성의 63%가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직업에 대한 여성의 태도 등과 관련한 개선점이 노출되고 있음

□ 걸코트(Girlcott)

- 걸코트(Girlcott)란 성차별이 심한 조직이나 제품을 보이코트(boycott, 배척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이는 행동)하기 위해 여성들이 모이는 것을 일컫는 말
 - boycott의 ‘boy’를 ‘girl’로 대체해서 만든 조어임
 - 예를 들어,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여자 테니스 선수들은 남자들에게 더 많은 상금을 주는 그랜드 슬램 경기를 여성들에 의해 보이코트하는 것을 고려했었다고 함

- 여성들이 보다 활동적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 결속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향후 여성들에 의한 보이코트(즉 Girlcott)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도하라운드 결렬과 전망*

- (G6 각료 협상 결렬) 지난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G6의 도하라운드를 위한 각료 협상이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둘러싼 각국 간 견해차로 결렬됨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은 크게 위축됨
 - (도하라운드 협상 결렬의 원인)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둘러싼 선진국 간 견해차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마찰로 도하라운드 협상이 결렬됨
 - EU와 일본 對 미국의 견해차: EU와 일본은 미국에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한 반면, 미국은 이들 국가가 보조금 삭감 이전에 농산품 관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
 -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 對 선진국: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농업보조금, 농업관세, 광공업품 관세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첨예한 마찰을 빚음
- (전망) 현재로는 도하라운드로의 복귀가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향후 국제 무역 질서는 다자간(Multilateral) 체제보다 양자간(Bilateral) 혹은 지역적(Regional)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쪽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예상됨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사실상 무산) 농업·서비스·공산품의 무역장벽 축소를 통한 무역자유화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는 애초 2004년이던 시한을 2006년 말로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함
 - 협상 사실상 동결: G6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상 연말까지 도하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미국 행정부의 협상 권한 만료: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을 위한 협상권한이 내년 7월 말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롭게 협상을 시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더러 그 이후에는 사실상 협상이 동결됨
 - (FTA 체결에 주력)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중단 이후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정부들은 FTA에 주력할 뜻을 분명히 밝힘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08.07)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네 단어의 위력

긍정적인 말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할 어반(Hal Urban)은 <긍정적인 말의 힘>이란 그의 저서에서 <시카고 트리뷴>의 컬럼니스트인 그린의 예를 소개한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고, 선생님조차 자신이 써준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돌려받은 숙제 노트에 적힌 네 단어가 그린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그건 바로 ‘아주 잘 쓴 글임’(This is good writing)이란 말이었다. 그린은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고, 가끔 짧은 이야기를 지으며 작가를 꿈꾸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는 그저 자신감이 부족한 한 소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써준 짧은 네 단어의 글이, 그의 작가적 자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린은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그 노트 여백에 쓰인 네 단어의 말이 없었다면 작가로서의 그도 없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일까’를 늘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어반은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멋진 느낌이 들었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은 똑같은 멋진 느낌을 준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후원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응원의 수준이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바꾸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신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다음과 같은 말일 것이다. “당신은 삶을 고양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바보는 뭔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 플라톤(BC 429~347) : 그리스의 철학자